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바란다 _ 문화일반

이제는 지역문화예술 위원회다!

culture | art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3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 자기 역할을 다 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한다. 새로운 출범이 단순히 간판만 새로 달고, 몇 사람 얼굴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외롭고 괴로운 예술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예술위원회가 별이요 등대요 불빛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그래서 11인의 예술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축하의 말보다는 힘내라는 격려의 말로 위로하고 싶다.



김기봉
- 지역문화네트워크 상임대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한다.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한결같다. 기초예술과 지역예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지원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젓소가 먹으면 젓이 된다. 그동안의 지원정책은 독의 역할과 젓의 기능, 양면성이 있었다. 지원에 의존케 하는 나태성과 그나마 생존케 한 양식적 측면 모두가 있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타성도 생기고 보이지 않는 관심도 생겨났다. 예술 현장의 불만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져갔다. 그래, 그러면 시스템을 바꿔보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쉽지 않은 길이었다.

필자는 지역문화진흥법제정 추진위원으로서, 그리고 이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추천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아쉬움도 있고 기대 또한 크다. 과연 제대로 잘 해낼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1명의 위원들이 산적해 있는 문제들과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난맥들을 모두 풀어내리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갖지 않는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한다. 다만, 해야 될 일을 정하고, 그 일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리한 일들은 반드시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당부와 격려의 말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무척 힘들었던 일 중의 하나가 민간 독립기구인 것 같으면서, 그 성격과 운영에서는 반관반민이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관료들보다 더 한다는 불만과 원망의 소리들도 있었다. 예술위원회로 출범하면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못하다. 문화관광부의 산하이고, 예산 조달과 운영에 있어서도 '불간섭의 원칙'(팔길이의 원칙)이 과연 작동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화부가 아무리 혁신하고 일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중앙부처의 속성과 관료의 틀을 벗어나기는 힘들다. 따라서 산하기관으로서 집행부처 역할에 자족한다면, 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은 의미가 없다. 이 독립성은 어떻게 확보될 것인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공개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문화예술인들

의 지지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믿어 달라, 기다려 달라, 이제 시작인데 혼드나”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한다.

둘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초예술과 지역예술은 두 바퀴다. 장르와 현장, 내용과 무대는 함께 가야 한다. 예술위원회 이름으로 출범하지만,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지역예술위원회가 빨리 구성되길 바란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예술위원회가 되길 바란다. 따라서 예술위원회는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2004년도에 문예진흥법 개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함께 논쟁된 적이 있다. 그때 지역문화진흥법을 추진하던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영국의 예술위원회 사례를 들어 ‘선 지역문화진흥법, 후 문예진흥법 개정’을 주장하였지만,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문예진흥법 개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들에 대해 수긍하고 힘을 모아주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술위원회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지역예술위원회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셋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기조다.

정책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헛고생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1기 예술위원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화예술 지표와 평가모형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집중과 선택, 소액다건이나 다액소건이나 등의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가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할 수가 있다.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원을 받아도 배가 고프다. 예술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잣대로 정량평가 하기가 쉽지 않다. 또 그래서 안 된다. 그러나 지원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 그래야 주어진 자원을 최대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지원에 대한 시시비비를 원초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럴 때 정책기조로 설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배가 고프더라도 자존심을 훼손케 해서는 안 되며, 창조적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그 가치와 존재가 평가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관료들이 아닌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문화예술의 정책과 방향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다. 예술이 행정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주는 고단한 창조자의 길임을,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으로 최대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예술가들 스스로 자정과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도 사족으로 붙여둔다.

문예진흥원은 32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예술위원회로 전환한다. 지역에서 힘들고 어렵게 문화예술운동을 해 온 필자로서는 욕도 많이 했고 투정도 심했다. 새로운 출범이 단순히 간판만 새로 달고, 몇 사람 얼굴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칭찬과 격려로 그 앞길을 축하해주고 싶다. 누가 예술가의 길을 가라 하지 않았지만, 그 예술의 길이 우리들 미래의 창이요 희망의 샘이 될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다. 다만, 외롭고 괴로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예술위원회가 별이요 등대요 불빛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그래서 11인의 예술위원들에게는 축하의 말보다는 힘내라는 격려의 말로 위로하고 싶다.

